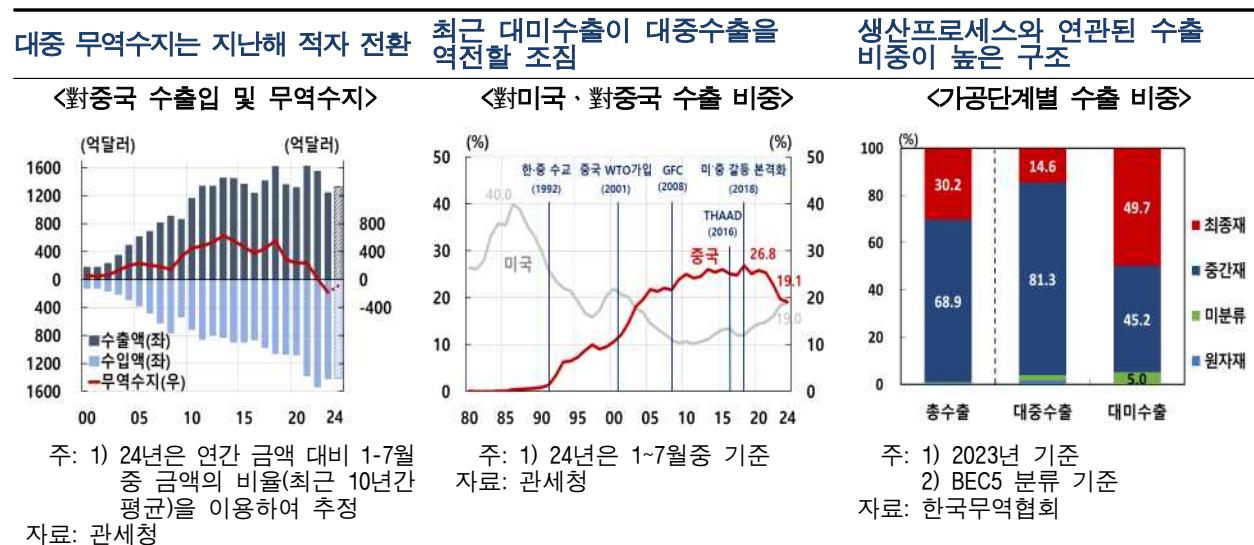


## 1.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

(조사국 거시분석팀)

1.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달라지고 있다. 대중 수출의 80% 이상이 중국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인 만큼 최근의 교역구조 변화도 양국 간 생산 연계성 변화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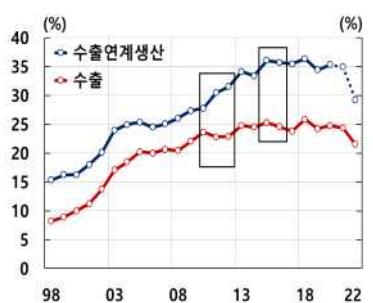
2. 우리나라의 대중국 '수출연계생산'<sup>1)</sup>은 2000년 이후 매년 GDP의 1.3%에 해당하는 규모씩 증가하며, 수출이 정체되던 2010년대 중반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<sup>2)</sup>. 간접적인 수출활동을 포함한 '수출연계생산'의 중국 비중이 통관 기준 비중을 크게 상회한 점은 포착되지 않은 중국과의 수출연계성이 추가로 존재함을 의미한다. 또한 대중 수출연계생산을 분해해보면 국내로 재투입되는 중간재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대중 수출은 내수용 생산활동과도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, 중국과 관련된 경기적·구조적 변화는 한국 산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.

1) OECD 국제산업연관표의 수출 측 해외생산 익스포저 개념으로,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함한다(OECD 2024).

2) 대중국 수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11.4%에서 2020년 11.9%로 소폭 상승한 데 그친 반면 대중 수출연계생산 비율은 15%에서 17%로 꾸준히 확대되었다.

한-중간 생산연계성은 통관수출로 중국 생산과 관련된 중간재 수출 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도 중국과 높은 연계성  
포착한 규모를 훨씬 상회 중 상당부분이 내수와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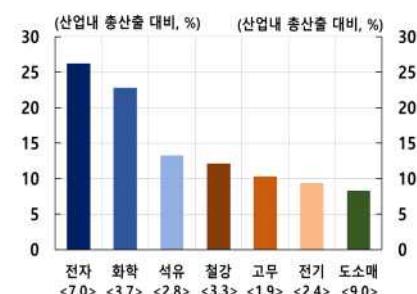
<수출<sup>1)</sup> 내 중국비중>



<대중 수출연계생산 분해>



<산업별 대중 수출연계생산 비중>



주: 1) 전산업 기준

2) 수출 = 통관수출 + 서비스수출

수출연계생산 = 수출용 중간재생산

3) 21-22년은 연장된 ICIO를 이용.

자료: 관세청, OECD ICIO, 한국은행

주: 1) 음영은 연장된 ICIO로 추정

자료: OECD ICIO, 한국은행

주: 1) 2020년 기준

2) <>내는 각 산업의 비중

자료: OECD ICIO, 한국은행

### 3. 대중국 수출연계생산 흐름을 ①중국 및 글로벌 수요에 기인한 부분과 ②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에 기인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,

① 중국(■) 및 글로벌(■) 수요는 중국의 고성장 등으로 2010년까지 수출연계생산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이었으나, 이후로는 그 긍정적 영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.

이러한 수요 요인은 글로벌금융위기(2009) 등 글로벌 경기상황과 중국 성장률의 둔화추세(00년대 10.6%→10년 이후 6.8%) 및 최근의 중국 내수부진 등을 반영하고 있다.

② 반면 생산구조<sup>유발계수</sup> 변화는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제고 등을 반영하며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<sup>3)</sup>(■ 및 ■).

최종수요 기여도는 2010년대, 생산구조 기여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세

<대중 수출연계생산 변동<sup>1)</sup> 요인별 분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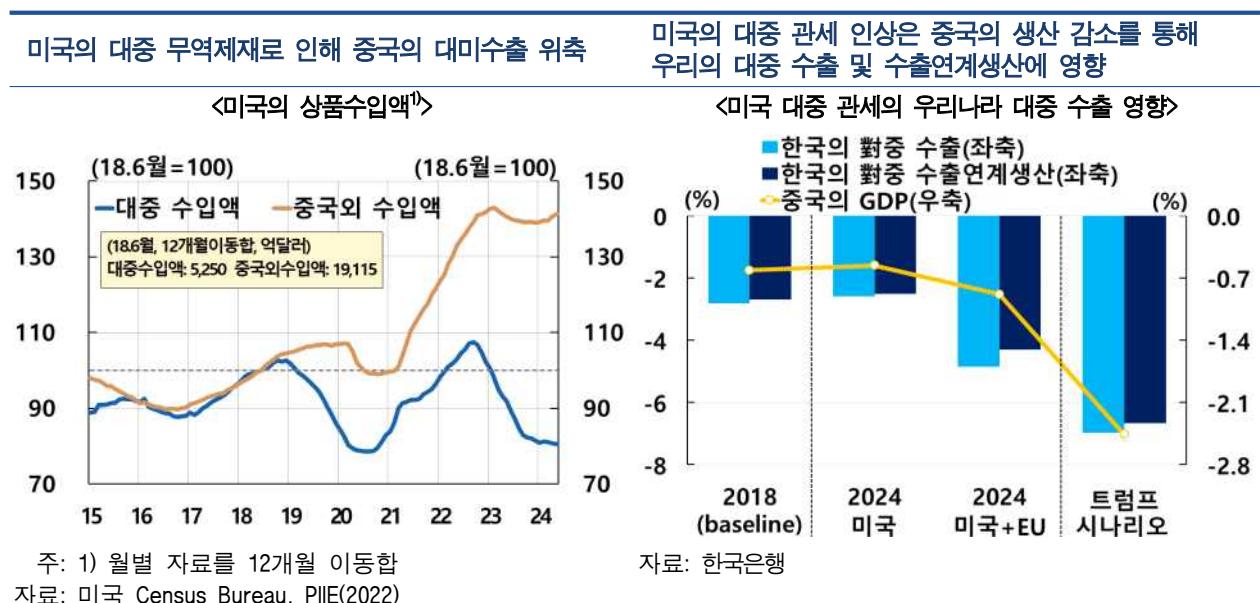
주: 1)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전년대비 증감액을 전년도 총부가가치(GDP)로 환산

자료: OECD ICIO, 한국은행

3) 산업별로는 섬유·의복(90년대 후반)→화학, 철강·금속(00년대 중반)→석유정제(10년대)→IT(18년 이후) 순으로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

종합해 보면, 2010년 이후에도 수출연계생산이 매년 GDP의 0.9%씩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은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 효과(-0.7%)가 수요 호조(+1.6%)로 인해 상당 부분 가려져 온 결과로 판단된다.

4. 최근에는 미·중 갈등이 ①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②생산구조 변화 측면에서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먼저, 미국의 경우 2018년에 대중 수입품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수출이 빠르게 감소하였다.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은 3% 감소하였는데, 미국이 2024.5월 바이든 정부의 발표대로 관세를 추가 인상하거나 EU가 이에 동참할 경우 3~5%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. 또한 트럼프 대선 공약 수준의 관세인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략 6%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


5.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,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①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, ②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. 특히,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, 이에 발맞춰 우리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레벨업이 긴요하다 하겠다.